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주님께서서는 친지와 혈연에 대한 사랑을 하느님 사랑보다 더 앞에 두지 않도록 사람들을 아버지와 어머니, 친척들로부터 갈라놓으신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처럼,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신자로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가장 높은 경지의 가족 사랑에 이르는 길이다. 사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 부모와 형제자매,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비교하고 경중을 따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신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대신에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친지들은 모두 주 예수님 안에서 신자인 우리와 함께 있다. 하지만 주님 없이는 그들과 함께 참되게 있을 수 없다.

신자인 우리는 주님 말씀에 따라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들이다. 주님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참고 견디며 그분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여 영생을 얻고자 한다.

참된 신자는 언제나 항상 주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써 자기 목숨을 얻는 사람이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그분의 참된 제자이며 참된 신자이다. 하느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영원히 사는 것이 눈앞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참된 신자는 주님께 속한 이들이며, 그는 자기 욕망과 지은 죄들, 쾌락과 헛된 이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과 죽고 묻혀서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이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일시적이고 헛된 것에 집착하여 거기에서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이다. 그는 결국 죽음의 손아귀에 넘겨질 뿐이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이들이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성령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영생을 얻는 이들이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이다.



고태경 율리아노 신부 | 진교본당 주임

주일 진례

| | |
|---------|-----------------------|
| 제 1 독 서 | 2열왕 4,8-11,14-16L |
| 화 답 송 |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 제 2 독 서 | 로마 6,3-4,8-11 |
| 복 음 | 마태 10,37-42 |

베드로 성금

베드로 성금의 현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교황 재위 첫해에, 이 베드로 성금의 올바른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 성금은 모든 신자가 보편 교회를 위한 로마 주교의 자선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러한 몸짓은 실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교황과 이루는 친교의 징표이고 형제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의 징표로서 강력한 상징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봉사는 특별한 교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베네딕토 16세, ‘St Peter’s Circle’ 회원들에게 한 연설, 2006.2.25.)

이러한 몸짓의 교회적 가치는, 자선 활동이 교회의 본성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에 대하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2005년 12월 25일에 반포하신 당신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조직화된 활동인 사랑의 실천에서 결코 면제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 각자의 사랑 실천이 불필요한 상황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정의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며, 또 언제나 사랑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9항)

이러한 지원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활력을 줍니다.

“교회의 사랑 실천이 그 모든 광채를 간직하며, 단순히 일반적인 사회 복지를 위한 기관 가운데 하나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원칙인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합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베드로 성금은 신자들이 성 베드로 직무의 후계자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라는 사실에 역대 교황님들께서는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직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 특히 전교 지역 국가들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요구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민족들과 개인들과 가정들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지원을 사도좌에게서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드로 성금은 복음화 사업에 참되고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편 교회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눈다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에 그러합니다.”(요한 바오로 2세, ‘St Peter’s Circle’ 회원들에게 한 연설, 2003.2.28.)

신자들이 교황 성하에게 바치는 헌금은 교회 활동과 인도주의적 사업과 사회 발전 사업과 성좌 활동 지원에 사용됩니다. 교회 전체의 목자이신 교황님께서서는 가난한 교구와 수도회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자들의 물질적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또한 교황님께서서는 가난한 이, 어린이, 노인, 소외된 이, 전쟁과 자연재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밖에 어려움에 놓인 주교와 교구에 대한 실질적 원조, 가톨릭 교육, 이민과 난민 돕기에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베드로 성금에 영감을 준 일반적 기준은 초기 교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사도좌 지원의 주요 원천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와 선의의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 준 봉헌이어야 합니다. 이는 복음에 기록된 전통(루카 10,7 참조)과 사도들의 가르침(1코린 9,11-14 참조)에 부합되는 것입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국무원 총리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 1982.11.20.)

교황님께서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교황님을 도우시다!

여러분의 기부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소중한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성스러운 또 다른 유산: 성전聖傳

변종원 요셉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 계시를 ‘말씀’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시는 성경으로만 기록되어 지금의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신비 속에 감추어 두신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교회는 사도使徒들이 전해준 하느님 계시의 체험들을 존중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체험하고 보존하며, 전달해 온 거룩한 전통, 곧 성전聖傳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에 대해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공생활에서 받은 것과 성령의 일깨우심으로 배운 것들을 설교와 모범과 제도로써 전달해 주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6항)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내용)’입니다. 즉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분과 함께한 공생활 속에서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그분의 승천 후 성령의 일깨움으로 깨닫게 된 것’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전했느냐(방법)’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자신들의 ‘설교’와 삶 안에서의 신앙적 ‘모범’, 더불어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리와 전례, 그리고 생활의 표양’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도들은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사도들은 교회 안에 기쁜 소식인 복음이 영구히 온전하게 또 생생하게 보존되도록 주교들을 후계자로 세워 자기 교도직敎導職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7항 참조).

가톨릭 교회에는 사도들에게서 유래하는 성전과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역 교회에서 생겨난 신학적, 생활 규범적, 전례적 또는 신심에 관한 전통 또는 전승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사도들에게서 유래由來하는 성전과 구별해서 ‘교회 전승’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승들은 교회 교도권의 지도 아래 ‘사도 전승’에 비추어 보존되거나, 수정 또는 폐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사도들에게 위탁된 하느님 말씀이 사도 계승을 통해, 곧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설교와 모범, 그리고 제도를 통해 전해지는 것으로 ‘교회 전승’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개의 큰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가톨릭 신앙을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인 ‘성전’이라는 큰 기둥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기록된 하느님 말씀(성경)과 사도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에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성전)을 모두 하느님 계시의 원천이자 신앙의 유산으로 삼고 똑같은 열성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과 성전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려 하는 교회의 교도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전, 그리고 교회의 교도권은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다른 것이 성립될 수 없고,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한 성령의 작용 아래 궁극적으로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과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배워, 삶으로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의 마음에 있다(로마 10,8).





허유고개 전설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어

해소기침 잦아들지 않는 할머니
머리 끄덕이다 손짓하며 자신을 업으란다

주님을 부르다가 주님을 부르다가
가혹한 매질에 혼절하고
물 한 동이 덮어쓰고

또다시 주님을 부르다가
숨이 멎고 목이 잘려
머리는 천상에 가고

밤은 깊어 허유고개 비탈길
허물어진 봉분 숨죽이더니

기침 소리 고개 언저리마다
성령으로 인도된 할머니
병인년을 증거하고

몸체는 사봉면 무촌리에 묻혀
무두묘 되었네
허유고개 전설 되었네

시들어가는 숨소리로 찾아낸
순교자 정찬문 안토니오
허유고개 양지바른 곳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빛이 되었네

정찬문 안토니오 순교성지는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987에 있다. 양반 가문의 외아들로 태어난 순교자는 결혼 후 부인의 권면으로 입교한 후 1866년 병인박해 때 체포되어 문중의 박해와 관아의 가혹한 문초에도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였다. 친척들이 관아에 가서 시신을 요구하자 머리는 남겨두고 몸체만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머리가 없는 무덤, 무두묘로 전해졌다. 1948년 문산성당에서는 순교자 무덤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길이 없었다. 이때 마을의 85세 할머니가 자신을 업으라고 하더니 허유고개 비탈길에 허물어진 무덤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순교자는 그 후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고 비석을 세웠으며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시복되어 복자품에 올랐다.

간이역

이규준 바오로 시인/ 가톨릭문인회

지친 노을처럼 시나브로 내리던 눈이 갑자기 엄지손톱 크기의 우박으로 변하여 평온했던 도시에 곰보처럼 상처를 내던 몇 해 전, 아이를 배양하기 위해 역을 찾은 적이 있었다.

오랜만에 나의 시야에 들어온 역의 풍경은 각종 비품과 시설물이 세련되고 현대화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옛날에 비하여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학창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차를 즐겨 이용했었다.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장점 외에, 덤으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누구의 간섭도 없이 고즈넉이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동안 성장하면서 세월의 구비마다 갖가지 사연을 거쳐 온 역마다 남겨 놓았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찾은 역이었지만 옛 친구를 해후한 것처럼 전혀 낯설어 보이지 않았다.

역은 수풀 우거진 깊은 산속의 동굴과 같다. 오랜 세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태생의 비밀과 수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동굴, 그 동굴은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굴은 산속에 있으면서 산의 구성원이지만, 산 고유의 개념 및 느낌과는 거리가 멀다. 역 또한 도시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고립된 섬과 같은 이방인의 느낌을 준다. 크기를 알 수 없는 우주 속에 지구가 있다면, 지구 안에 또 다른 지구의 축소판인 역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역은 만남과 이별의 장소이며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다. 간이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을 오는 사람들은 각기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사연을 만들어 놓고 떠나간다. 인생의 항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모습의 사건과 사연들이 화석처럼 쌓이게 된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승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역을 거쳐 간다. 그동안 거쳐 간 역들은 종착역이 아닌 간이역인 셈이다. 거쳐 온 간이역들의 궤적을 연결하면 인생이 되는 것이다.

간이역마다 삶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그동안 거쳐 온 간이역마다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심지어 숨소리까지 지워지지 않은,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인생의 파노라마가 만들어 놓은 이승의 발자취이다. 나는 그동안 짧지 않은 삶의 바다에 노를 저어 오면서 수많은 간이역을 거쳐 왔다. 힘겹게 거쳐 온 역들은 모두 종착역으로 가기 위한 간이역이었다. 그럼 종착역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해 씩 없이 달려가고 있는가. 이승의 종착역은 분명 죽음일 것이다. 단지 죽음이 종착역이라면 하느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 비참하지 않는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분명 지구에서 맞이하는 죽음일 수도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하게 된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죽음은 부활로 이어질 것이며, 부활의 종착역은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이다. 처음과 끝이 없는 영생이 시작되는 곳이다.

흘러간 강물은 돌이킬 수 없듯이, 간이역마다 남겨둔 삶의 궤적은 지울 수가 없으며, 도돌이표가 있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오욕의 역사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회와 보속, 앞으로의 신앙생활이다. 자유의지로 걸어가야 할 앞으로 삶은 오로라처럼 찬란하지는 않더라도 하느님께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이승에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게.

공소 순례 지원사업 결산내역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2022년도 '공소 순례'를 통해 모금한 공소 지원 후원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각 공소의 '공소 지원금' 신청서와 견적서를 받아 심의를 통해 지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수입

| 내 용 | 모 금 액 |
|------------------|-------------|
| 2022년도 공소 순례 후원금 | 41,130,000원 |

● 지출

| 공소명 | 지원금 사용처 | 지원 청구 금액 | 집행 지원금 |
|-----------|----------------------|-------------|-------------|
| 산청본당 실매공소 | 외부 수세식 화장실 공사 | 6,572,800원 | 6,572,800원 |
| 진교본당 삼장공소 | 회합실 및 사제관 내외부 보수공사 | 5,000,000원 | 5,000,000원 |
| 하동본당 영신공소 | 성전 지붕 도색공사 | 1,260,000원 | 1,260,000원 |
| 거창본당 용양공소 | 공소 주차장 포장공사 | 5,600,000원 | 5,600,000원 |
| 합천본당 쌍백공소 | 공소 내 냉난방기 | 3,450,000원 | 3,450,000원 |
| 고성본당 배둔공소 | 성전 신축공사 후원금 | 10,000,000원 | 10,000,000원 |
| 기 타 | 스탬프 설치 및 축복장 인쇄, 잡지출 | 2,334,000원 | 2,334,000원 |
| 총 계 | | 34,216,800원 | 34,216,800원 |

● 결산

| 수 입 | 지 출 | 이 월 금 |
|-------------|-------------|------------|
| 41,130,000원 | 34,216,800원 | 6,913,200원 |

※이월된 금액은 2023년도 공소 순례 후원금과 합산하여 공소 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견진성사

일시: 7월 4일(화)
장소: 진주교도소
일시: 7월 6일(목)
장소: 창원교도소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교구 출판검열관 회의

일시: 7월 3일(월)/ 장소: CBCK

전국 청소년국장회의

일시: 7월 5일(수)/ 장소: CBCK

제2차 본당양업22 실습 교육

일시: 7월 6일(목) 10:00/ 장소: 교구청

청년로고스 성경강좌

일시: 7월 8일(토)/ 장소: 교구청

예비신학생·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7월 9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사목부 성경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통영, 거제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7월 27일(목)까지(면담 후 봉사자 교육)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소성리 평화미사 참가자 모집

일시: 7월 10일(월)-11:0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출발
접수: 40명(선착순, 참가비 없음)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10·2759·4178

218차 ME주말 안내

일시: 7월 21일(금) 19:00~23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신청

(문자발송-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올라나) 010·4598·7530

기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7월 9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7월 21일~23일/ 7월 29일~31일/ 8월 1일~3일
성지순례: 9월 10일~13일/ 10월 7일~10일/ 10월 15일~18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성이시돌 피정센터)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쉽고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일시: 8월 1일~3일/ 8월 5일~8일/ 8월 11일~14일/
8월 27일~29일/ 9월 1일~3일/ 9월 8일~10일/
9월 16일~18일/ 9월 23일~25일/ 10월 1일~3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8월 2일(수)~3일(목)
9월 16일(수)~17일(목)
3박 4일- 7월 13일(목)~16일(주일)
7월 20일(목)~23일(주일)
8박 9일- 8월 7일(월)~15일(화)
9월 4일(월)~12일(화)
40일- 10월 4일(수)~11월 12일(주일)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8월 4일(금) 13:00~6일(주일) 16:00
장소: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중학생이상 미혼 남녀

회비: 7만 원
문의: 010·5490·5345 (myungkkot@daum.net)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피정

일시 및 장소: ·중고등부- 8월 7일(월)~9일(수),
경남 산청 성심원
·일반부- 8월 11일(금)~13일(주일),
서울 안토니오 피정의 집/ 접수: 선착순 모집
문의: 010·6608·3217(성소 담당 신부)

성모승천 전례피정

일시: 8월 13일(주일) 16:30~15일(화) 13:30
장소: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5만 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준비물: 수건, 칫솔 등 개인 세면도구, 텀블러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장 사용입니다.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그라츠 싱아카데미 합창단 Singakademie Graz 방한 공연 초대

- **일시 및 장소: 1차-** 7월 8일(토) 10:30, 성지여고
- **2차-** 7월 8일(토) 20:00, 용원성당
- **문의:** 교구 그라츠자매교구위원회 055·249·7016



| 성령기도회 | 일시 | 장소 | 주제 | 강사 | 미사 주례 | 문의 |
|-------|----------------|-------------------|-----------------------|------------------------|------------|---------------|
| 교구 | 7월 3일(월) 19:00 | 중앙동성당 | 막히 내 인생의 해답(사도 16,24) | 진홍장 다두(삼성산기도회장) | 박혁호 미카엘 신부 | 010·5247·9900 |
| 청년 | 매주 (수) 19:30 |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 성령기도회 |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 | 010·6667·7809 |

|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시 | 장소 | 문의 | 비고 |
|-----------------|------------|-----------|-------------------------|--------------------------|
|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 원하는날(미리연락) | 부산 부곡동 본원 |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 인스타그램에 한국외방선교수녀회를 검색하세요. |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 제주도(추지도) 성지순례 모집
7.17(월)~19(수)/ 7.24(월)~26(수)
- 한국 성지 167순례 모집
7.27(목)~30(주일) 원주·춘천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8.17(목)~20(주일) 대전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가톨릭 트러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519만원(+1,800유로, 9월 17일)
070-4086-0207 www.catravel.co.kr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여가터 3박 4일 115만원

미르코 투어 010-4239-1929

망경동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행사



망경동본당(주임: 이우진 요한 신부)은 6월 25일 설립 2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였다. 6월 17일부터 '망경성당' 사행시 공모, 회고 사진전, 영상물 상영, 교우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6월 24일에는 구역별 윗놀이 대회, 색깔 맞추기 게임, 저녁 나눔, 기념음악회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설립 25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에는 역대 주임 사제들이 참석하였다. 임상엽 마르코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 "시작은 미약하고 힘들었지만, 25주년을 맞아 청년이 되었고 아름답디나무가 되었다.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리라 축복한다."라고 전하였다.

교구 평협 수산종자 방류사업 실시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 최봉원 야고보 신부, 회장: 최종록 대건 안드레아)는 6월 15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에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신은근 바오로 신부(교구장 서리)를 비롯한 교구 사제, 수도자, 신자, 한국 평협 임원, 지역 행정기관 관계자, 지역 어민단체 및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실천과 해양 생태 회복을 위하여 제1부 개회식, 제2부 방류행사로 (사)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회장: 박완규 토마스 아퀴나스-교구 평협 부회장)의 지원으로 5개 어종 15만 마리, 1억 3천만 원 상당의 치어를 방류하였다.

하대동본당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2,000차 기념 주회

하대동본당(주임: 이상원 베네딕토 신부) 상아탑 Cu. 소속 그리스도의 어머니 Pr.(단장: 권권순 리디아)은 6월 8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Pr.은 198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6명의 단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사제, 수도자, Co. 단장 등 많은 본당 신자들이 함께하며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장등본당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2,000차 기념 주회



장등본당(주임: 박진우 아우구스티노 신부) 그리스도의 어머니 Pr.(단장: 강춘자 미카엘라)은 6월 18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Pr.은 장등본당 대산공소 신자들로 이루어진 Pr.으로 단원들은 40여 년을 한결같이 활동해 왔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사제 및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너무나 특별한 임마누엘 성가대

이란 제노베파(월남동본당)

교정 시설 안에 있는 임마누엘 성가대 연습을 한 번만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첫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그 한 번만 이라고 했던 것이 어언 26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첫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간 흐드러지게 핀 너무나 아름다웠던 벚꽃길을 이렇게 긴 세월 걷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뒷머리를 탁 때릴 것 같은 싸늘한 느낌을 받아 두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그들도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맑은 눈망울의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시키는 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높여 성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성가에 얽혀있는 하느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면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귀담아듣곤 하던 그들의 모습은 밖의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악보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먼저 불러주면 금방 잘 따라 부릅니다. 새롭게 성가대에 참여하는 사람들 거의가 세례를 받지 않은 미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가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곳 회장의 권유로, 또는 목요 미사 때 성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으로 오게 된 이들이 많습니다. 호기심으로 왔다가 성가의 매력에 빠져 성가를 좋아하게 되고 성가를 부르니 스트레스도 풀리며 그나마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가대에 들어오면 미신자인 그들은 거의 모두가 교리반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성가가 그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경우이지요. 그리고 성가대에 있는 이가 세례를 받게 되면 자기들끼리 기뻐하며 축가를 불러 주어야 한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며 성가단원이 세례 받는 그날은 축제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가대를 운영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를 도와 반주를 해주었고, 지금도 봉사해 주시는 반주 봉사자 자매님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많은 후원자님들의 덕분입니다.

요즘에는 냉난방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그런대로 견딜만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봉사하는 저희들도 겨울에는 두껍게 옷을 입고 들어가도 추위에 떨었고, 한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단원들이 내의도 없이 떨면서 보낸다는 소리를 듣고 관심 있는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매번 내의를 사서 성가대 단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랑이 많은 지인이 간식비를 보내 주어 피자과 빵 등 간식을 풍족하게 공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 나서시고 마침내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루카 15,1-7 참조). 그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후원회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사랑은 차가운 그곳에 하느님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여 새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 목요일은 다른 일이나 볼일 등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곳에 매이지만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6)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바쁜 시간 내어 임마누엘 성가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 교정사목 후원계좌 안내

○마산·창원·거제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3-35604, 농협 849-01-309873, 경남 593-07-0021495

○진주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5-22604, 농협 301-0041-1371-31, 우체국 613448-01-001528

●예금주: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정사목 사무실 055·249·7043





교구청 신축을 마무리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이었던 교구청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교구 내 사제, 수도자, 신자, 기관과 단체, 그리고 타 교구와 전국 평화방송 시청자, 미국과 캐나다 한인 천주교 공동체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 2월 15일 마산교구가 서부 경남의 농촌과 어촌 중심으로 부산교구에서 분리 설정되었고, 어려웠던 시기에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교구청이 오스트리아 그라츠-섹카우(Graz-Seckau) 교구의 지원을 받아 1974년 5월 31일 가톨릭 문화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977년 12월 8일 마산 성지 여자 중·고등학교와 거제 해성 중·고등학교를 학교법인 성지학원(聖旨學院)으로 설립하면서, 그 소유가 학교 법인으로 귀속되어 그 때부터 우리 교구는 사실상 셋방살이 교구로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좁고 불편한 시설에서 벗어나 교구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년에 폐원(閉院)된 국군 마산병원 부지(敷地) 42,458평을 2014년 8월 5일 매입하여 교구청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5월 15일 교구청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 8월 31일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코로나19(COVID-19)가 확산하는 시기였지만 미루지 말고 공사를 진행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2021년 3월 2일부터 기존 병원 시설을 철거하고, 6월 19일 기공식(起工式)을 했으며, 6월 20일부터 교구민들의 교구청 신축 기도와 모금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8월 2일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2월 31일 교구청 지하 1층과 지상 3층(본관, 사제관, 수녀원, 성전) 2,153평과 성사 전담 사제들을 위한 야고보관 327평 등 기타 공사를 사고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모금액은 교구 전도금(前渡金)을 포함하여 21,890,058,17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9일 창원시로부터 건물 사용 승인을 받고, 3월 22일-24일 새 교구청으로 이사했습니다. 또 5월 8일부터 교구청 방문 기간을 정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했으며, 5월 26일 추진위원회 회계 감사도 받고, 6월 21일 지구장과 교구청 사제,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와 여성협의회 임원들에게 교구청 신축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먼저 저희를 이렇게 올바르게 이끌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도움을 준 후원자, 설계를 맡은 서울 솔토지빈(Soltozibin) 건축사사무소, 공사를 담당한 부산 주원(周元) 종합건설, 아울러 교구청 신축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새 교구는 주변 자연환경이 좋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교구의 중심지가 되고 충절(忠節)의 고장 죽헌로(竹軒路) 숲살마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쉼터가 되고, 교구는 지역복음화(地域福音化)에 더욱 매진하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우리의 희망대로 교구장 공석에 따른 서리제도(署理制度)의 과도기가 빨리 끝나, 남은 부지에 교구의 중요한 2차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구장의 부름을 받고 2020년부터 총대리와 사무처장 역할을 해오면서 3년 6개월 동안 교구청 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함께 여러 가지로 협조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교구청 신축추진위원회 활동을 마칩니다.

주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내리시길 빕니다.

2023년 7월 2일
교구청 신축추진위원장 최봉원 신부

교구청 신축사업 결산

▶ 기간 : 2018.05.11. ~ 2023.06.15.

1. 수입

| 계 정 과 목 | | | 금 액 | 내 역 |
|---------|------|------------|-----------------------|--|
| 관 | 항 | 목 | | |
| 모금수입 | 교구봉헌 | 본 당 | 11,434,970,871 | 각 본당 사무실 모금액 |
| | | 사 제 | 779,190,600 | 교구 사제 모금액 |
| | | 교 구 개 인 | 529,952,125 | 교구 내 개인 모금액 |
| | | 교 구 단 체 | 896,808,213 | 교구 내 단체 모금액 |
| | 외부봉헌 | 타 교 구 | 1,550,000,000 | 타교구 금일봉 |
| | | 외 부 개 인 | 714,105,510 | 1. 교구 외 개인 모금액 2. 교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개인 모금액 |
| | | 외 부 단 체 | 464,000,000 | 교구 외 단체 모금액 |
| 교구지원 | 교구지원 | 전 도 금 | 5,385,000,000 | 교구 부담금 |
| 잡수입 | 잡수입 | 예 금 이 자 | 131,951,086 | 각종 이자 |
| | | 잡 수 입 | 4,079,770 | 보증금 환입 및 법인세 환급금 |
| | | 합 계 | 21,890,058,175 | |

2. 지출

| 계 정 과 목 | | | 금 액 | 내 역 |
|---------|------|------------|-----------------------|-------------------------------|
| 관 | 항 | 목 | | |
| 공사비 | 조사비 | 타당성조사비 | 37,530,000 | 타당성조사 및 수목조사 |
| | | 지질조사비 | 28,655,000 | 대지레벨 측량 및 지질조사 외 |
| | 철거비 | 지하시설철거비 | 26,800,000 | 지하 유류탱크 사전 철거 |
| | | 건물철거비 | 1,294,809,950 | 국군마산병원 철거 및 석면조사비 |
| | 건축비 | 설계비 | 485,194,800 | 건축설계 및 변경설계 |
| | | 건축공사비 | 13,968,760,000 | 시공사 기성금 |
| | | 감리비 | 381,905,000 | 건축, 소방, 통신, 전기감리 및 감독관 |
| | 직영공사 | 교구청성전 | 356,400,000 | 교구청 성전 인테리어 |
| | | 조경공사비 | 451,480,000 | 교구청 내 조경공사 |
| | | 냉난방설치비 | 352,890,000 | 냉난방 시설 |
| | | 도로포장비 | 790,500,000 | 도로포장비 |
| | 추가공사 | 보일러 | 690,000,000 | 중앙집중식 보일러 설치 |
| | | 기타공사 | 654,300,000 | 싱크대, 스테인드글라스, 방송실, 북카페, 전기 추가 |
| | | 야외시설 | 213,800,000 | 성모상 조경 및 야외휴게소 설치 |
| | | 야고보관 | 1,502,360,000 | 공동사제관 리모델링 공사 |
| | 부담금 | 수수료 | 2,226,752 | 보증보험 및 인증서 발급비 |
| | | 제세금 | 17,660,720 | 상수도 및 급수공사부담금, 각종 수수료 |
| 비품비 | 비품비 | 교구청비품비 | 484,643,270 | 사무용품, 주방기기, 전례용품, 사제관 비품 |
| 운영비 | 운영비 | 업무추진비 | 45,776,990 | 설계공모우수작 보상금 및 접대비 |
| | | 일반수용비 | 26,371,390 | 기도문, 교구보 발행 및 사무실 운영비 |
| | | 회의비 | 2,606,690 | 각종 회의준비비 |
| | | 잡지출 | 17,555,720 | 각종 렌탈료 및 각종 설치비 |
| 행사비 | 행사비 | 기공식 | 338,800 | 교구청 신축 기공식 |
| | | 이사비 | 11,020,000 | 교구청 이전 이사비 |
| | | 기타행사비 | 3,149,460 | 방문 기념품 |
| | | 합 계 | 21,846,734,542 | |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간: 2023년 4월 1일~2023년 6월 15일

▶ 총액: 105,029,459원



1. 사제

| 성명 | 금액 | 성명 | 금액 |
|----------|---------|----------|-----------|
| 구성진(6차) | 600,000 | 이상록(24차) | 400,000 |
| 김형렬(24차) | 600,000 | 이수호 | 2,400,000 |
| 서정술(8차) | 600,000 | 전동혁(3차) | 3,300,000 |
| 계 | | | 7,900,000 |

2. 교구 내 개인

| 성명 | 금액 | 성명 | 금액 |
|-----|-----------|---------|-----------|
| 구영자 | 1,000,000 | 한행자(5차) | 100,000 |
| 계 | | | 1,100,000 |

3. 교구 외 개인 계 1,410,000원

남경애, 박기선, 이동구, 이택순, 황정철

4. 본당 계 94,619,459원

■ 거제 600,000원

■ 거창 4,696,668원

- 분납: 강현진(미카엘라), 김기오(폴베), 김수정(젤뚜르다), 김순옥(테레사), 김왕출(미카엘), 마인(베네딕도), 박동운(마태오), 유옥임(헬레나), 이천두(프란치스코), 정지수(테오도로), 조석래(비오)

■ 경화동 4,250,000원

■ 구암동 250,000원

■ 대건 3,050,000원

■ 대방동 1,410,000원

- 완납: 정경희(스텔라), 천무환(세례자요한)
- 분납: 김서현(안나), 이주형(요한), 전상조(요셉), 전석만(베드로), 한미영(세실리아)

■ 덕산동 1,840,000원

- 분납: 김경숙(글라라), 김분연(리타), 김혜정(엘리사벳), 김효원(가롤로보르메오), 손우식, 신숙(말가리다), 오주원(미카엘라), 유영숙(모니카), 이천위(루치아), 홍호선(안나), 황금숙(가타리나)

■ 망경동 12,800,153원

■ 명서동 13,135,000원

- 완납: 김태근(요한), 문상숙(올리아), 이미란(세실리아), 이상수(베네딕도), 장남출, 장지수(요셉), 정근찬(시몬)
- 분납: 강지현(베로니카), 고민정(안젤라), 구인숙(로스리아), 기봉현(안젤라), 김영희(막달레나), 김은선(아네스), 서상우(요셉), 이의렬(대건안드레아), 전운경(세실리아), 정동열(미카엘), 최기은(살레시오)

■ 문산 310,000원

■ 반송 1,219,587원

- 완납: 김국태(프란치스코), 박해정(임마누엘), 이올하(다네엘), 이효경(요한보스코) 차경섭(베드로)
- 분납: 박종은(라우렌시오), 오충열(제라르도), 이현재(니콜라오), 하정화(아가다)

■ 봉곡동 656,454원

- 완납: 김상필(안나), 김미경(엘리사벳), 김진규, 박영옥(아네스)

■ 복신동 300,000원

- 완납: 강현주(로사)

■ 사림동 1,245,000원

- 완납: 강승우(베드로), 권영희(마리아), 김순희(레지나), 박민용(안토니오), 방승태(요한), 이승훈(베드로), 이정태(요한), 정순녀(엘리사벳), 한성호(알레노)

■ 사천 715,000원

- 분납: 강기갑(로벨도), 노승주(사도요한), 오남영(마리아), 이한국(베드로), 정진옥(라우렌시아)

■ 사파동 5,010,000원

- 완납: 강영석(프란치스코), 강정화(세실리아), 고순배(스콜라스티카), 김대수(안드레아), 서재준(요한), 이동엽, 하해수(안드레아)
- 분납: 김형철(베네딕토), 김혜진(카타리나), 박선옥(베드로), 박희지(빈첸시오아바울), 정재역(도미니코)
- 추가: 진미경(소피아)

■ 산호동 4,940,000원

- 완납: 김근소(하상바로), 김완희(가브리엘), 박윤동(요셉), 박형우(삼손), 유언년(비비안나), 정기철(요셉), 정재규(요한), 지

고구청 신축기금 봉헌자 명단

부야(마리아)

- 분납: 권택성(스테파노), 박희정(바오로), 윤석고(안셀모)
- 추가: 주재식(아브라함)

■ 삼계 1,130,000원

- 완납: 이상록(사무엘)
- 분납: 구은길(베드로), 김경란(아네스), 김영남(안젤라), 김용순(수산나), 오정택(요셉), 이명숙(아네스), 이은경(펠라지아), 정연석(로마노)
- 추가: 김희정(미카엘라)

■ 상남동 626,000원

- 완납: 박신석(바오로), 박희조(요셉), 안병영(라파엘), 윤필레(테레사), 장자림(마리스텔라), 천승환(라우렌시오)

■ 상평동 4,500,000원

- 완납: 서복순(크리스티나), 조남순(안나), 변태근(요셉)

■ 신안동 9,731,710원

- 완납: 김동우(대건안드레아), 김영희(수산나), 김지인(프란치스코), 김호준(안드레아), 류승우(베드로), 봉재환(즈가르야), 이금중(벨라도후코), 이상현(발렌티노), 이정일(빈첸시오), 임길달(카타리나), 정건영(샤스탕)
- 추가: 강성민(야고보), 김기정(레지나), 김돌연(보리나), 김점미(로사리아), 서은형(테레사), 신상면(프란치스코), 윤선호(루카), 이화영(수산나)

■ 안의선교 500,000원

- 완납: 이시영(안드레아)
- 추가: 김의순(올리아나), 최윤정(소화테레사)

■ 옥포 1,100,000원

- 완납: 강현용(아브라함), 강홍섭(스테파노), 김계순(모니카)
- 분납: 김정순(아네스), 김태승(요한), 남성미(가타리나), 최병철(스테파노)

■ 월영 2,860,000원

- 완납: 김근규(프란치스코), 박희정(엘리사벳), 배금자(세실리아), 윤순복(다니엘라), 정마리아(마리아), 조순옥(엘리사벳)
- 분납: 강나리(아니시아), 강태규(미카엘), 강화정(테레사), 곽철운(요셉), 권기호(루시아), 권상태(비오), 김계수(즈가리야), 김문환(리노), 김현숙(세실리아), 김현주(크리스티나), 김희자(안나), 민현주(헬레나), 박분선(카타리나), 이승준(그레고리오), 이영희(베르디아나), 장은실(벨라데타), 정순덕(모니카), 조현철(바오로), 최성황(펠릭스), 최영수(안드레아), 최옥환(루치오), 홍숙경(사비나), 황주연(아모스), (주)민들레 생각
- 추가: 이경숙(엘리사벳)

■ 의령 200,000원

■ 장승포 1,970,000원

- 완납: 김덕용(요한보스코), 김미애(베로니카), 김민규(미카엘), 김

차순(젬마), 이길선(카타리나), 이명화(스테파니아)

- 분납: 이상욱(안토니오)

■ 장평 710,000원

- 완납: 변영신(요셉), 서태원(사도요한)
- 분납: 배현근(바오로), 최선화(비비안나)
- 추가: 김태한(가밀로)

■ 중동 100,000원

- 완납: 최재호(펠릭스)

■ 중앙동 3,245,000원

- 완납: 박계순(다니엘라), 손영순(젤라시아), 이석순(미카엘라), 허원영(베네딕타)
- 추가: 안효주(엘리사벳)

■ 진교 50,000원

■ 진동 100,000원

- 분납: 황정환(베드로)

■ 태평동 2,251,887원

- 완납: 강철근(바오로), 구영자(올리아나), 김광석(프란치스코), 김금선(모니카), 김다혜(루시아), 김영숙(마리아), 남상호(토마스), 노상욱(미리암), 문건희(테레사), 박돌연(마틸다), 박미자(아네스), 박서용(도미니코), 서옥주(유스티나), 성기연(글라라), 손경민(마티아), 오임숙(리나), 옥정선(모니카), 이석구(안셀모), 이태명(스테파노), 이희자(라파엘라), 정명숙(아가다), 정인호(야고보), 정종주(루카), 주한섭(라디슬라오), 지철근(디모테오), 최영주(루카), 최원(도미니코), 최한기(스테파노), 추필연(헬레나)

■ 팔용동 840,000원

- 완납: 권효정(레지나), 박지원(제노베파), 최경애(안젤라)
- 분납: 백금선(아나스타시아), 허원(요한)

■ 하동 2,930,000원

- 완납: 김옥민(베난시오), 박봉구(베드로), 박예지(세라피나), 선우일민(요셉), 이성진(요한), 이주찬(요한보스코), 임랑훈(브루노), 임영옥(올리아나), 임은선(루치아), 정재용(요셉), 하중렬(요한마리아비안네)

■ 함안 4,537,000원

- 완납: 구하원(미카엘라), 김흥기(안셀모), 나숙현(세라피아), 박후남(아네스), 장경익(토마스), 정구낙(야고보), 조현준(F.사베리오), 최희숙(라파엘라), 한화숙(친니아)
- 분납: 박영순(마리아), 안상식(안드레아), 이미호(베네딕토)
- 추가: 이진희(에스텔)

■ 함양 130,000원

- 완납: 박정춘(아가다)
- 분납: 김명선(노아), 이정호(가스탈)



마산교구청 건축의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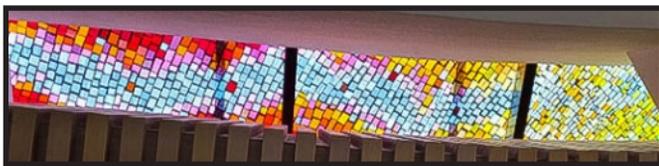
‘성서적 풍경 - 느슨한 질서를 가진 중정’.

- 성서적 풍경은 기존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이 이어지는 종교적 영성을 정착시킨다.
- 중정은 느슨한 질서를 가진 곳으로, 이 질서는 용도가 다른 시설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늘과 산의 형상을 안으로 끌어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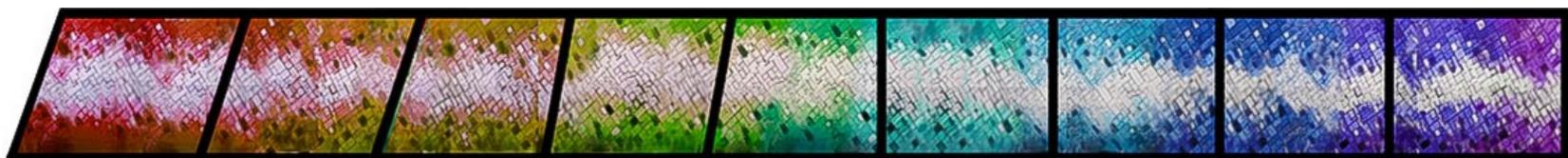
교구청 성전의 구상

마산교구는 교구 순교복자를 기억하고자 한다. 성전에는 다섯 분의 복자 흉상을 디자인하였고, 순교를 통해 하느님을 증거한 순교 복자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상징하는 빨마가지와 우리도 복자들의 신앙으로 주님과 일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십자가를 디자인하였다.



천창 스테인드글라스

성전의 천창은 순교복자들의 부활신앙을 살아넘치는 파도에 비유하여 아름다운 색깔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특별히 모자이크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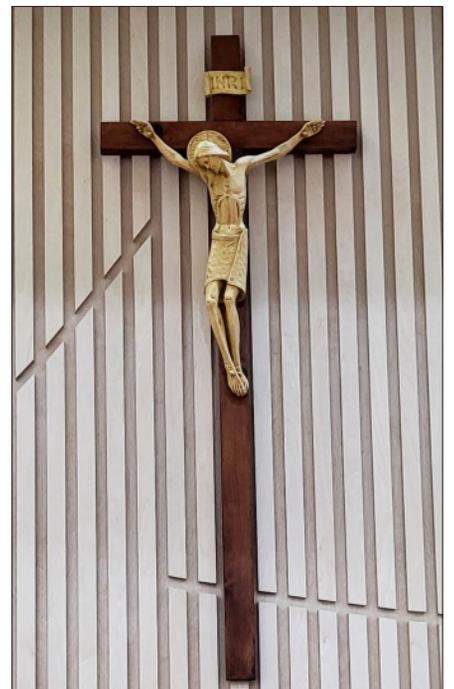


성전 내부모습

- 제단벽 7개의 부드러운 선은 칠성사를 의미한다.
- 성전기둥은 회랑이 주는 고요함을 드러낸다.
- 제대와 독서대의 12개 선은 열두제자를 상징하며, 삼각형은 삼위일체의 의미를 담아 이미지화 하였다.
- 성전문 주위의 부드러운 이미지는 친환경 흡인 토로로 작업하여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다.



- 그라츠 성모상은 박기홍 (Josef Platzer)몬시뇰께서 몸소 그라츠에서 모시고 오신 성모상으로 세월에 따라 칠이 벗겨진 것을 안명옥 주교님의 주선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교구청에 모시게 되었다.



- 제대십자가는 옛 교구청 지하 창고에 보관되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제단벽에 현시하였다.



지혜의 성모상

지혜의 성모상은 잔디광장과 임곡소류지를 바라보며 설치되었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들인 성모님과 같이 교구가 하는 모든 일이 성모님을 통하여 주님께 찬미와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비둘기는 성령을 상징).



교구청 북카페

- 북카페는 교구청을 방문하는 유치부 어린이부터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의 놀이와 휴게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었기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